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1 호 11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21 호 (235)
1963년 11월 (상)

(반 월 간)

차 례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더욱 심각하여 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멀리 리탈하여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깊이 굴러 떨어지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과 평화 위업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 속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적들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반대하며 그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공동의 투쟁 과업이라고 인정한다.

1,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사회주의는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바로 문 앞에 있는 섬나라 큐바에서도 승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지구 륙지의 4 분의 1, 세계 공업 생산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위대한 승리이다.

국제 로동 계급이 자본의 철쇄를 끊고 쟁취한 이와 같은 전 세계사적 승리는 결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허다한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뚫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원쑤들과의 결사적 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자본가들과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자기들의 가장 무서운 원쑤로 선포하였으며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온갖 흉악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투쟁을 담당하여 왔다.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뼈아픈 실패도 하였으며 고통스러운 퇴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투항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이 나타나 혁명 대렬을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실패에서 락심하지도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도 않았으며 비겁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건 말건 계속 혁명의 붉은 기치를 고수하였다.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손에 무기를 들고, 때로는 철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불사조와 같이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본의 진지를 끊임 없이 공격하였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자라났다.

력사 상 처음으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였던 파리 콤뮨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파리 로동 계급의 70 여 일간의 결사적 투쟁 끝에 실패로 돌아 갔다. 콤뮨은 야만적 백색 테로에 의하여 피바다 속에 잠겼다. 그러나 파리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 업적과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써 얻은 고귀한 교훈은 국제 로동 계급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초의 위대한 승리는 레닌의 령도 밑에 로씨야의 로동 계급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상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의 강력한 보루를 가지게 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궐기시켰으며 오래 동안 《력사 밖에 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수억만》(레닌)<1> 동방 인민들을 각성시켰다. 혁명적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은 동방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과 결합되여 제국주의에 더욱더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교살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련 인민은 레닌 당의 령도 밑에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공격을 물리치고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끝까

지 고수하였으며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나아갔다. 원쑤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은 위대한 혁명의 기치—레닌주의 기치 밑에 강대한 력량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국제 자본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주의—파시즘을 력사 무대에 등장시켰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 쏘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격대로 내몰았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치렬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반파쑈 전선의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흉악한 원쑤들과의 결전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피압박 근로 대중을 령도하여 장구한 기간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략탈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웅적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완전히 격파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말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국제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근로 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분쇄되였으며 세계의 많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 나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치하는 강대한 진영을 형성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력사적인 대사변으로 된다. 이 때로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력량은 점차 인류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인류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 국제 자본가 계급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의 결과이다. 그것은 100 여 년 동안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총화이며 장구한 기간에 걸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 조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블럭》도 아니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발전 과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승리한 로동 계급들은 자기들에게 고유한 계급적 련대성의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하나의 진영에로 결합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이것은 국제적인 사회주의적 련대성의 긴밀한 뉴대와 공통적인 리해관계 및 목적의 통일로 하여 단합되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인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협동체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2〉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새 형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계급적 동맹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미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 진영에 망라된 형제 국가 인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평화 위업과 혁명 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통일되고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을 결속시키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은 전반적 국제 정세를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킨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모든 반동 세력들을 전률케 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음흉한 술책에 더욱더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고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찌또 도당은 수정주의에 떨어진 첫날부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계통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찌또 도당을 적극 비호하면서 점점 더 사회주의 진영에 혼란을 조성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찌또 도당의 책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제 로동 계급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그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사수하여 온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2,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은 그 대렬의 통일에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된 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믿음직

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실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공산주의 운동의 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단결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 계급은 력사 무대에 등장한 첫 시각부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자본가 계급을 타승할 수 있었다. 오늘도 사회주의 진영은 통일된 대오로 나아감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사실 상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상 상의 론쟁을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며 배제하기 위한 책동들이 감행되고 있다. 군중들과 다른 형제 당들과 국제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반대하는 소란스러운 깜빠니야가 전개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적 동지와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적들에게는 더욱 접근하고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여 계급적 형제들과 혁명적 동지들에게는 원쑤처럼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형제 당,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뒤통수에 이러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 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등지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의견 상이를 리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떠벌리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기정 사실로 묘사하기에 서두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운명과 세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수수 방관할 수 없다.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할 간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장구한 투쟁의 력사적 전취물을 옹호하는 것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의 사회주의 국가나 혹은 사회주의 진영에 망라된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시금석으로 평가되였다.

지난 시기 쏘련은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지원하였다. 쏘련은 세계 혁명의 유일한 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쏘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곧 세계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신성한 국제주의적 행동으로 되였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였다.

암담한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쏘련을 우러러 보았으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라는 구호 하에 쏘련 인민에 대한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은 13개의 나라로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쏘련과 함께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같이 국제 혁명 운동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직 <돌격대>가 하나 밖에 없었으며 거의 단독으로 이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물론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오늘에는 전혀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와 웽그리아에 이르기까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돌격대>들이 출현한 오늘 우리 당은 투쟁하기도 용이하게 되였으며 또한 일도 흥겹게 되고 있다.》<3>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장성됨에 따라 세계 혁명의 기지도 확대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세계 혁명의 기지로 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쏘련과 함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행동으로 된다. 오직 이러한 태도만이 혁명의 승리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세계 혁명을 가일층 추진시키는 길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도 있고 오래지 않은 나라도 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가 오래지 않은 나라보다 국제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그고 혁명을 먼저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피착취 대중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결코 어느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대표하며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한 나라의 위력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역할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이건 오래지 않은 나라이건, 경제가 발전된 나라이건 뒤떨어진 나라이건 할 것 없이 다 같이 혁명적 립장에서 견결히 노력한다면 자기들이 차지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례컨대 오늘 큐바는 서

반구에서의 첫 사회주의 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어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큐바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당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가 크며 방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단결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버린다고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듯이 행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나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별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의 구체적 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한 특정된 나라의 혁명의 성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다 같이 귀중하다.

우리는 국제 로동 운동의 영광스러운 전취물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반석 같이 다지며 그 토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앞날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만약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위력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세계적 깜빠니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국제 반동 세력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악의에 차서 증오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한짝이 되여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무근거하게 중상 비방하며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까놓고 말하여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무슨 사회주의 진영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큰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나라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용허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장구한 혁명 투쟁의 결과에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여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할 대신에 어제는 한 나라를, 오늘은 다른 나라를, 래일엔 또 그 어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가져 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킨다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것은 그 한 나라에만 관계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운명과 관계되며 세계 혁명의 운명과 관계되는 근본적 문제이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라도 더 많이 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계속 확대될 것을 념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하물며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를 떼여 내버리려는 행동을 어찌 용허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보다 두 나라가, 12 개 나라보다 13 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일부 사람들은 개별적인 나라들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떼여 버리려고 하는 한편 제멋 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치하게 규탄된 찌또 도당과 같은 제국주의의 사환'군을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황당한 일이다.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주관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나라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 《사회주의 칭호》를 주고 이를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어느 한 개인의 롱락물로 될 수 없다.

분렬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통일은 수호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통일되여야 한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어떠한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 나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어떠한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혁명의 전진 운동을 가로 막지는 못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일적인 대오로 굳게 단합되여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3,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은 호상 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 목적으로 단합되여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은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간의 호상 관계의 본질과 원칙들을 맑

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선언과 성명은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범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장구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력사적 경험들을 총화하여 형제 당들이 일치하게 내린 결론이다.

바로 이 규범들은 각국 당들의 단결의 기초로 되며 행동 통일의 규준으로 되고 있다. 이 규범들의 정당성은 이미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형제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호상 관계의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진실로 자원적이고 의식적이며 공고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이 위반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 사이에는 불피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해치게 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즉 누구는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집행하는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당이 다른 당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 동지적으로 지지하며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형제 당들 간에 합의된 이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들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로는 누구나 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원칙들을 준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 집권적 원칙은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은 결코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한 당내에서는 당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복종하며 모든 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만약 개별적 당들의 이 내부 생활 규범을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그것은 기성된 권위를 가진 어느 한 당이 기계적 다수를 규합하여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다른 당들에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단결은 없게 되고 대국주의적 오만과 관료적 전횡이 지배하게 되며 호상간의 불신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형제 당들 간에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기할 수 없게 된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오늘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형제 당들 간의 호상 관계에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주장은 이미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에서 배격되였으며 파산 당하였다.

오늘 각국 형제 당들은 국제 공산당이 존재하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혁명 운동은 모든 대륙에 걸쳐 미증유의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되였으며 정세는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세련되였으며 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중앙》으로부터의 유일 지도는 할 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각국 형제 당들이 호상간에 아무러한 련계도 없이 분산적으로 혁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호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국 형제 당들은 공통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적인 전략과 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내린 평가와 결론들을 일치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형제 당, 형제 국가들 간의 계급적 련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형제 당들 사이에서는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 형제 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 임무가 각이한 데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혁명에 대한 잘못된 립장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형제 당들 간에 의견 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과 원칙에 근거하여 진지하고 인내성 있게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형제 당들 간에 합의된 원칙들을 자의로 저버리고 의견 상이 문제를 각종 강압의 방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자기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형제 당들에 대하여 덮어놓고 《교조주의》, 《종파주의》, 《민족주의》, 《모험주의》, 《호전 분자》 등의 감투를 씌우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그들은 당들 간의 사상상의 론쟁 문제를 점점 더 국가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로 확대시키고 있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조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싶이 하고 있다. 대사를 비롯한 외교 일'군들과 보도 일'군들을 빈번히 추방하고 있다. 형제 국가와 국교를 단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에 형제 당들 간의 사상 상의 론쟁 문제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야 하겠는가? 제국주의 나라들과도 국가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어떻게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리득을 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며 손실을 보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계급적 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 도덕과 의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여 있다. 계급적 동맹의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각국 형제 당들은 피부 색갈이나 인종 및 지역 별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 등 표징들에는 관계 없이 오직 계급적 전우로서 평등한 립장에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이 초보적 규범도 유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민족이나 인종의 《우월성》과 특출한 역할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계급적 형제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형제 당들을 모욕하는 거만한 태도이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락후한 아세아》에 관한 관념이나 《우월한 민족》, 《렬등한 민족》에 관한 관념은 이미 오래 전에 규탄되고 매장된 낡은 유물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줴 버려야 한다.

형제 당, 형제 국가들 간에서 일방이 타방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행위는 호상간의 정상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근원으로 된다.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며 호상 협조하는 것은 그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이 호상 원조와 협조는 또한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당, 형제 국가들에 다 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혜택을 베푸는 것도 아니며 장사'군과 같이 치부를 해 두기 위한 것도 아니다.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 조건 있는 《원조》, 내정 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매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공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한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한다.

한 당의 결정이나 조치들은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며 결코 다른 당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더우기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 나라들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많은 형제 당들이 공연한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다른 형제 당들의 대내외 정책들을 규정하여 추며 그 실천을 통제하려 한다. 다른 당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형제 당들에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동지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정책에 대하여도 응당한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개년 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제작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농업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농기계가 없이 어떻게 농촌 경리를 협동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 남의 실정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결심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손실을 받은 것은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정한 후과를 가져 올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다.

각이한 환경과 력사적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느 한 당의 정책이나 경험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간에 서로 믿고 성과를 같이 기뻐하며 형제 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며 형제 당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허심하게 서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달성하는 형제 당들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제 당들을 의심하며 형제 당들이 자기의 《훈시》대로 움직이는가,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가 않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형제 나라 출판물들과 방송들에서 어느 한 당의 결정들과 문헌들을 의무적으로 보도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형제 나라들에서 어느 한 당의 력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까지 감독하려 하며 심지어는 어느 한 나라의 영화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따지며 간섭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벌써 평등과 호상 존중의 정신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대국 배타주의의 표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형제적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이상과 같이만 된다면 그

것을 어떻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새 형의 국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말로는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력사 상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이다.

이 형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심병》을 없애며 대국 배타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상실하고 다른 당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도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 사업에 불가피적으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며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게 된다.

레닌은 《각국의 공산주의적 로동 운동의 국제적 전술의 통일은 결코 다양성의 제거와 민족적 차이의 말살을…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쏘베트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을 …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옳게 맞추어 옳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 4 >한다고 지적하였다.

각국 당들은 독자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혁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개 당들은 자기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령도하며 자국 인민 앞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정책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 서도 안 되며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형제 당들의 정책과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도 안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 할 것이다.》< 5 >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켜서는 안 된다. 교조주의를 범한다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 대중으로부터 리탈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각국 당들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혁명 발전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 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에 대하여는 매개 당들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어느 특정한 당의 경험만이 유익하고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당에서 창조된 경험은 배울 것이 못 되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지난 년간 레닌과 그의 위업을 계승한 쓰딸린을 수반으로 한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력사적 경험은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이 력사적 경험들을 부정하고 쏘련 인민이 걸어 온 지난 시기를 《암흑의 시기》로 묘사하는 것은 곧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10월 혁명의 길에서의 리탈을 의미한다. 찌또 도당의 소위 《유고슬라비야의 길》은 이의 한 가지 실례이다.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의 경험과 함께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창조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들과는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과 력사적 전통과 민족적 풍습 등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특수성들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다.

식민지 예속 국가였던 나라들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특히 피압박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으로 된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면 설수록,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이 다르면 다를수록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더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될 것이다.

각국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 발전의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함으로써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데 집체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오직 매개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의 의식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할 공동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는 동시에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매개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하며 그 힘을 단합함으로써만 전체 진영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를 튼튼히 다지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진지를 백방으로 공고히 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를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어느 당도 자기 인민과 국제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당의 명도 하에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담보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만약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원조에만 의존한다면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자력 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야만 형제 국가들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로 국제주의에 충실한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이다. 우리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6 >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창설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이한 사회 력사적 조건과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어떤 나라는 과거로부터 비교적 발전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았으며 어떤 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였던 탓으로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나라들에서 하루 속히 자립적인 민족 경제

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건설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나라의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발전된 현대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만 형제 국가들과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극히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력 갱생과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극력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편향》이요, 《폐쇄적인 경제》요 하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로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진상을 외곡하면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마치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와 원조에 모순되는듯이 사태를 꾸며대고 있다.

그들은 그 무슨 《생산 전통》이니 《수익성》이니 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종합 경제는 오직 큰 나라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한된 몇 개의 경제 부문만 발전시켜야 하며 항상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괴이한 론리이다.

묻노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보장, 이 기초 우에서의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이라면 어찌하여 이 원칙이 경제 분야에서는 《위험하고》《유해로운》 것으로 된단 말인가?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의 원칙을 유명 무실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발전되고 다방면적인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농업을 건설하지 않고는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합 경제》의 창설을 제창하고 있다. 그들은 《통합 경제》가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협조의 가장 리상적인 형태이라고 한다. 그들은 《통합 경제》의 간판 밑에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없애고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통제하며 그것을 다른 나라 경제에 얽매인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통합 경제》의 실시는 매개 나라의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하며 인민들의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경제 발전에 혼란과 침체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통합 경제》의 실시는 결국 매개 사회주의 나라 경제를 어느 한두 나라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어느 한두 나라 경제 발전의 리익에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립성이 상실되면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권도 보장될 수 없다

는 것은 뻔한 일이다. 독립과 자주권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국제적 협조도 사실 상 존재할 수 없다.

자립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는 계속 락후한 처지에 있어야 하며 과거의 농업 국가는 계속 농업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 수준에서의 차이는 퇴치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것이며 발전된 나라에 대한 락후한 나라들의 의존 상태는 의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제국주의의 억압 하에 있는 나라의 인민들에 대하여도 좋지 못 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세계 인민들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만약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자립 경제 로선을 부인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며 락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불피코 식민지 예속 국가와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외곡된 표상을 주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고 남에게 예속되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자고 하겠는가.

사회주의 진영은 오직 어느 한두 개 나라만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다 같이 발전될 때에 더욱 위력하여질 수 있다.

그러자면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나라들의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먼저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후에 혁명을 하고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대렬에 들어 선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락후성을 퇴치하고 발전된 선진 국가의 수준에 올라 서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자주성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진정으로 반석과 같이 다질 수 있으며 세계 혁명의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에 압도되여 감히 침략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형제 국가가 하루 속히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발전된 강국으로 전변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적극 받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행동이다.

사회주의 각국 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러한 립장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철옹성 같이 다지기 위하여서는 역시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방력을 다 같이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와 제 인민들의 안전의 수호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제거될 수 없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무장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방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 하에 진행되든 사회주의 진영의 무장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치도 어느 한 나라의 무장력만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의 수중에 장악된 최신 군사 기술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보위에서 다른 형제 국가들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당 하여야 할 호상 협조도 잘 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대하여 진심으로 념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립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과 최신 군사 기술은 그것을 소유한 당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제어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를 어느 한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는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에 의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최신 무기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방위함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정한 초소들을 수호하고 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자기의 초소를 지키는 데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여 《전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군사력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동시에 자체의 힘과 가능성에 최대한 의거하여 적들의 어떠한 군사 전략적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하여 다 같이 최신 군사 기술을 소유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집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전투적 단결의 립장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 당들은 또한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대중에 대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이 약화되는 곳에서는 부르죠아 사상이 머리를 들게 되고 대중의 계급적 각성이 마비된다.

지주, 자본가는 계급으로서 청산되였으나 그의 잔재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관습들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각종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침투시키며 이 나라들에서 청산된 착취 계급의 잔존 세력들과 낡은 사상 잔재 및 낡은 생활 풍습들에 의거하여 각종 부르죠아 사상 독소와 퇴폐적인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변질시키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유》요, 《민주주의》요, 《준법성》이요, 《인도주의》요 하면서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며 계급 투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급이 청산되였다》느니, 《정치범이 없다》느니, 《진압의 대상이 없어졌다》느니 하는 구실 밑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 진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도이다.

물론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 계급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계급 투쟁이 없어졌다거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에는 부르죠아 사상이 만연되여 사람들이 안일 해이하여지고 부화 방탕하게 되며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내외의 원쑤들에게 파괴 활동의 틈을 지어 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계속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계속 꾸준히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지며 그 힘이 단합될 때에 사회주의 진영은 비할 바 없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성새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다.

5,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종국적 목적은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세계 혁명의 구성 부분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세계 혁명이 종국적 승리에로 가는 과정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 수 없으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떠나서는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은 불가분리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일국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을 자체 목적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일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기 만족적 과업이 아니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체를 자기 만족적인 단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로,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이. 쓰딸린) < 7 >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 혁명을 잊어 버린다면 그것은 혁명 투쟁을 도중에서 멈추는 것으로 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위업으로부터 물러 서는 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을 완수함으로써만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과 함께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혁명의 기지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도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세계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을 통하여 세계 인민들을 혁명 투쟁에로 부단히 고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잘 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통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

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수중에 있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실업과 빈궁이 근절되고 로동과 휴식과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는 사실들을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전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과 인민들의 공산주의적 도덕과 고상한 풍모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킬 것이며 그들을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을 다만 경제적 경쟁에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개인 향락이나 누리게 되면 다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범의 의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경제적 경쟁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저절로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 경쟁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승리는 아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혁명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회 발전의 주객관적 요인의 작용의 총체적 결과로서 일어 난다.

혁명 정세의 성숙과 혁명의 수행은 우선 그 나라의 내부적 발전의 산물이며 그 나라 인민들의 각성 정도와 조직성에 달려 있다. 이러저러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인민들 자체에 의하여 준비되며 수행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경제적 경쟁이 가지는 의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계급 투쟁의 립장에서 물러 서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면 세계 인민이 자연히 다 해방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희생을 내면서 혁명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전횡을 계속 감수할 것을 설교하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회피하려는 것이며 세계 혁명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희생이 두렵다고 하여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 가도 해방과 독립은 얻지 못 한다.

혁명 투쟁에서의 희생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착취와 무권리, 실업과 빈궁,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매 시각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가.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제국주의 야수들의 박해와 탄압에 의하여 철창 속에서 신음하며 형장에서 무참히 쓰러지고 있는 것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 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레닌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나라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원하며 고무하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실행»** <8>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동맹하여야 하며 어디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하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 로동 계급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인민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민족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동맹하여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 제국주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력량을 적극 쟁취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로동 계급에게 계급적 련대성과 전투적 지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철쇄를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 수출의 음모를 저지시키고 파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의 위업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 각층 세력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세를 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킬 것이다. 오직 이러한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사회주의 진영은 명실 공히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하지 않으며 전쟁의 위험성에 빙자하면서 그들의 무장 투쟁을 반대하는 것은 인민들의 혁명 위업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하는 것이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지 않는 현상과 함께 《원조》의 구실 하에 세계 혁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비계급적인 현상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어데까지나 원조를 받는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 진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제공되여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리탈된 《원조》는 진보적 력량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동 세력을 돕게 될 것이며 혁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 각종 원조를 이러저러한 나라들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세계 혁명을 해치는 행동이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항상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 세계 혁명 운동 발전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만 만족하면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누리기만 하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 간다면 어떻게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혁명의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남보다 일을 적게 하고 자신의 안일과 향락에만 급급하게 한다면 그들은 계급적 형제들의 고통도 망각하게 될 것이며 세계 혁명의 리익도 안중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의 의리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륭성 발전과 전 세계 근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계속 긴장하여 투쟁해야 하며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세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인류의 3분의 2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없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인민들이 식민주의의 치욕스러운 멍에를 벗어 던지지 못 하고 있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올가미를 들씌우고 있다.

만약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국제주의자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목전의 안일을 추구하여 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혁명을 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다.

자기도 혁명을 안 하고 남도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겠는가. 그 누구도 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해방되지 못 한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곤난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며 혁명에 권태증을 느끼고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은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전 세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혁명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 성원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인민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거대한 힘으로 되며 원조로 된다.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체계에 타격을 주며 그 진지를 약화시킨다.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으로 된다.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이 자국 정부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파탄시킨다면 이것은 그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지원을 주는 것으로 된다. 세계 각국 인민들의 완강한 공동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수족이 얽어 매여지고 평화가 유지 공고화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소동이 벌어졌을 때마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나선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에서 세계 인민들이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도 전 세계 근로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는 데서 우리의 힘은 배가될 것이며 혁명의 위업은 촉진될 것이다.

전 세계 근로 인민들과 피압박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6,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강력한 기지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다 세계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륭성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며 거기에 자기들의 사활적 리해 관계를 결부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을 때에 강력하고 위대하며 진보적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엄중한 국면에 처하여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이미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 의견 상이로 발전하였다.

이 의견 상이는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순한 투쟁 방법 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어떤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전략 전술의 전반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오늘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느냐 하지 않느냐,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현재의 론쟁은 결국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투쟁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변하였다》는 구실 하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고 있으며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그들에게 덤어 놓고 양보하며 순응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을 싫어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각국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끌어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혼란과 긴장성을 조성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를 망신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이 장기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위대한 진지를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대두한 우경 기회주의를 제때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혁명 로선과 기회주의 로선은 량립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오늘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개별적 당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현 정세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며 심사숙고하여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응당 우리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난국은 결코 몇몇 당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개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방법과 형태는 매개 당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방법과 형태를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당이 자체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에서 이 투쟁에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당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정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수정주의가 군중 속에 침투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수정주의에 끌려 들어 가지 않도록 하며 전체 공산주의자들과 군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확고히 서게 하며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매개 당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수정주의를 남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동을 단호히 제지하며 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도처에서 수정주의를 범람시키며 다른 당들에 자기 뒤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정주의적 립장을 지지하고 협조하여 나설 《동료》들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

들은 이러한 행동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좌지우지하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내리 먹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수정주의자들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의 원칙적 립장을 굽혀서는 안 되며 항상 독자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와 각국 당 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광범히 전개하며 사상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투쟁의 예리한 무기이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결국은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립장과 관련된 사상 정치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강압적 방법이나 사태를 어물어물 덮어 두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는 비판과 자기 비판,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기 운동의 약점들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9>라고 레닌은 교시하였다.

우리는 사상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들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단련시키며 군중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준비시킬 수 있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립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에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나 개별적 당에서나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종파》니 무어니 하는 감투를 씌우며 보복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할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비판 사업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의 계선은 확연히 갈라질 것이며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수정주의는 파산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건전한 토대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는 락오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혁명 대렬은 그 순결성이 보장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이며 계속 장성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수정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오를 부단히 혁명적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경험은 오직 혁명 대렬이 유일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결

속될 때에만 강력한 전투적 부대로 될 수 있으며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온갖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와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승리하여 왔다.

이 투쟁 과정에는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혁명적 로선을 견지하여 난관들을 극복하고 자기 대렬을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한때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도적 지위를 리용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다. 그때에 수정주의자들의 형세는 매우 큰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레닌을 선두로 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혁명적 맑스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수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다.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된 수백 수천만 공산주의자들의 대군이 자라났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여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휘날리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레닌주의의 가면을 쓰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리울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압박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 투쟁 앞에서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폭로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회주의적 로선은 파산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더욱더 확증되고 있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는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 한 인민 대중은 계속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수정주의의 패배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단결하여야 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하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수정주의를 반

대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한 첫날부터 시종 일관 단결의 원칙을 수호하여 왔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근로 인민들이 불멸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 있게 전진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

<1> 레닌 전집 제 31 권 272 페지

<2>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19 페지

<3> 쓰딸린 쏘련 공산당 제 19 차 대회에서 한 연설

<4> 레닌 전집 제 31 권 98 페지

<5> 김 일성 선집 제 5 권 245 페지

<6> 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한 연설

<7>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543 페지

<8> 레닌 전집 제 28 권 364 페지

<9> 레닌 전집 제 31 권 214 페지

위대한 10월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자

오늘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6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영웅적 로씨야 로동 계급이 레닌과 공산당의 령도 하에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통치를 전복하고 세계 최초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창설한 가장 심각한 혁명적 변혁이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인류 해방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세계 혁명의 시초를 열어 놓았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의 길, 민족적 재생의 길을 밝혀 주었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한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에 관한 레닌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레닌의 학설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여 주었다. 이것은 또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거부하고 개량주의를 설교하던 제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10월의 위대한 기치는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인 레닌의 영상과 함께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고무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심장을 더욱더 튼튼히 틀어쥐고 새로운 승리에로 향도하고 있다.

쏘련 인민은 레닌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고 부동하게 전진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레닌이 서거한 후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위크당은 뜨로쯔끼, 부하린 기타 온갖 레닌주의의 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쏘련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쏘련 인민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극복 타개하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쏘련을 세계 1등급의 과학 기술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의 령도 밑에 쏘련 인민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인류를 파쑈의 노예화에서 구출하는 데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새 사회 건설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주었다.

쏘련 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신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귀한 피땀으로써, 주권을 장악한 인민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혁명적 정력으로써 쌓아 올린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10월의 길은 철저한 혁명의 길이며 이 길로부터 리탈되면 곧 기회주의의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된다. 10월 혁명은 로동 계급의 해방이 개량주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혁명의 길에 의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이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혁명적으로 궐기할 때에는 어떠한 반동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0월 혁명 후 쏘련 인민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은 정권을 전취한 로동 계급이 자기의 혁명적 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라도 능히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확고하게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승리한 로동 계급은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함으로써만, 그리고 오직 자기의 전위대인 공산당의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또한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의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 국가 내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세계적 범위에서 레닌주의의 승리를 촉진하는 중요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10월의 위업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의식적인 로동 계급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다.

2 차 대전 후 구라파와 아세아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전변되였다.

레닌이 그처럼 념원하던 중국 혁명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승리하였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는 10월 혁명 후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한 자장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오늘 사회주의의 기치는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바로 코 앞에 있는 큐바에서도 휘날리고 있다.

우리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력사 밖에 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레닌 전집, 제 31 권, 272 페지) 식민지 민족들을 크게 각성시켰다.

10월의 길을 따라 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을 휩쓸게 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50여 개의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미제의 《안전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반제 반괴뢰 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자본의 철쇄를 반대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운동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전면으로부터도, 후면으로부터도 강력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

✻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은 위대한 10월의 기치에서 해방의 무기를 찾았으며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암담한 비운에 처하여 있던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비쳐 주었으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밝혀 주었다.》**(선집, 제 5 권, 205~206 페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길,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일제를 반대하는 15 성상에 걸친 간고한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조국의 해방을 촉진시켰다.

영웅적 쏘련 군대는 우리 인민을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쏘련 인민은 해방 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미제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나 항상 조선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 있었으며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물심 량면으로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이 준 고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해방 후 고난과 시련으로 충만된 조선 혁명의 전 과정은 조선 반도에서 위대한 10월의 사상,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레닌주의 리론이 승리한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우리 당은 레닌의 계속 혁명 리론에 근거하여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그의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레닌의 협동화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과업의 하나인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를 확고히 수립하였다.

레닌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전취한 후 자기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에 걸쳐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경제 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를 성과 있게 건설하는 기본 담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며 그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쏘련 인민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로부터 지성어린 원조를 받았다. 이 원조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력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조에만 의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의 힘에 기본을 두고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완강하게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로선을 견지하고 관철시킨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하루 속히 튼튼히 꾸려야 할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국제 혁명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적인 로선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인 로선이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민족주의적 편향》이니, 《페쇄적 경제》의 건설이니 하면서 비방 중상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달가와 하지 않으며 그 나라들을 락후한 채로 남겨 두고 압력을 가하여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결코 형제 국가들 간의 협조와 원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는 것,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원조는 본질 상 호상성을 띠는 것이며 원조를 주는 나라나 원조를 받는 나라에 다 같이 유리한 것이다.

원조를 주는 것을 그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우기 원조의 구실 하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과 같은 것은 철저히 배격되여야 한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라고 가르쳤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 없이 사회주의의 건설에 조직 동원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죠아지 즉 주민의 소수를 반대하는 폭력을, 민주주의의 완전한 발전…과 결합시킨다.**》(전집 제 23 권, 18~19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전복된 계급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을 전취한 로동 계급의 중요한 임무이며 근로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부단히 높이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특히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철저한 계급 의식과 혁명 정신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비단 착취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계통적으로 취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 하에서 창조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의 본질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놓은 데 있다.

이 체계의 공고 발전은 나라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을 국가 및 경제 관리의 주인으로 더 잘 준비시키는 동시에 로동 계급의 농민에 대한 지도, 국가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게 하고 있다.

어떠한 구실 하에서든지 사회주의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거세하거나 약화시킨다면 기필코 전복된 계급들이 머리를 들게 할 것이며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더 높임으로써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킬 때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10월이 열어 놓은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며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때 반드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10월의 기치, 레닌의 기치는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옹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이것은 10월 혁명 이후 세계 로동 계급이 쟁취한 가장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며, 세계 혁명의 강력한 요새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보루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로동 계급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 과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였다. 세계 방방곡곡의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위하여 피를 흘렸으며 이것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사회주의 진영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련대성의 요구에 의하여, 동일한 리해관계 및 목적으로 하여 단합된 계급적 동맹체이다.

계급적 동맹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이 반석 같이 통일 단결되고 혁명 투쟁에서 보조를 같이 취할 때 그의 힘은 10배, 100배로 증대될 것이며 이 단합된 력량 앞에서는 그 어떤 제국주의 전쟁 세력도 감히 함부로 날뛰지 못 한다는 것을 생활은 확증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며 그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가장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발맞추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또한 날뛰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견실한 당들,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교조주의자》니, 《민족주의자》니, 《전쟁광》이니 하고 중상하면서 그들을 배척 고립시키려는 전례 없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리도, 원칙도 다 집어 던지고 계급적 형제들을 원쑤로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견실한 당들을 사회주의 진영에서 떼 내려는 음모까지 서슴 없이 꾸미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시도는 완전히 헛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협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어떤 한두 사람의 의사나 제의에 의하여 해체되거나 몇 개 나라가 그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현 사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붉은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 순간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력사적 과업이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어느 한 개별적 나라나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기 이전, 쏘련이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혼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시기에는 쏘련 한 나라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국제주의적 의무였다. 당시 쏘련은 세계 혁명의 유일한 기지였으며 혁명적 인민들은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고무를 받았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쏘련에 대한 열렬한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됨으로써 세계 혁명의 기지는 확대되였으며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전일적인 계급적 동맹체를 고수하는 문제가 나서고 있다.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가 한 나라 뿐일 때는 한 나라를 옹호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주의적 행동이였다면 오늘에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표현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저들의 견해와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형제 당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지어는 제국주의자들과 합류하여 중국을 반대하는 《대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의 3 분의 2의 인구와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곧 적들의 면전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사분오렬케 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말아 먹으려는 수치스러운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단결은 수호되여야 하며 분렬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은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 즉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기초로 되며 행동 통일의 규준으로 되는 이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공고화될 수 있다.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의 길에서는 락오자, 타락 분자, 변절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결코 약화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강화된다.

비겁 분자들이 혁명을 배반하고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맑스-레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기치, 레닌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단합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투쟁은 더욱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며 승리는 공산주의자들 편에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맑스주의와 수정주의와의 계선을 명백히 그어야 하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수정주의는 파산될 것이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참다운 단결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10월의 기치에 충실할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은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내 로동 운동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세계 6 대주에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밝혀 주고 있다. 인민들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그 앞에서 전률하고 있다.

미래는 공산주의에 속하며 승리는 인민의 것이다.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10월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더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

김 창 원

현 시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위대한 혁명 투쟁의 시대로서 특정지어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세계 도처에서 비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에로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각이한 나라들, 각이한 민족들이 각이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각국 당과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이 혁명 수행에 관한 일반적 원칙들을 주고 있는 것 만큼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각이한 나라들에서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구체화됨이 없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 문제는 또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이 원칙들을 란폭하게 외곡 수정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수정 거부함으로써 혁명 수행에 커다란 장애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리론-실천적 문제로 제기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사회 력사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합법칙성은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에는 관계 없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며 반복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에로 가는 모든 나라들이 거치지 않으면 안될 일반적 로정과 방향이 내포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혁명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한 것이며 전능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또한 그것이 철저한 과학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

이 원칙들은 인류 력사의 전 행정과 국제 로동 운동의 전체 투쟁 경험을 일반화하여 천명한 과학적 결론들이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그 후 제반 사회 력사적 운동 행정에서,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특히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의 제반 실천 행정에서 그의 정당성이 여지 없이 확증된 진리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그의 보편 타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전능한 것이며 따라서 그 누구도 이를 마음대로 뜯어 고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고수하며 준수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이 원칙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함으로써만이 사회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혁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례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령역에서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당이 령도하는 주권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여야 한다. 그것은 각국의 제 특성으로 하여 형태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외의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 기간에 존재하여야 한다. 만일 도중에 이것이 필요 없게 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혁명을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경제적 령역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의 청산과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수립, 농촌 경리 및 도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전일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상응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의 창조,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등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적 변혁을 수행함으로써만 사회주의는 공고 발전될 것이다. 그것들도 각국에서 생산력 발전 정도, 계급적 력량 관계와 기타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질 수 있으나 본질에서는 다를 수 없다. 개인 경리를 가지고도 공산주의에로 갈 수 있다는 자들은 결국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자들이다. 이 따위 《리론》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원칙과는 량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은 정치적 및 경제적 령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령역에서도 수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문화 혁명이 수행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되여야 한다. 특히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부르죠아 사상 잔재들을 청산하며, 계급 교양을 위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 강력히 진행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계급 교양을 떠나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운운하는 《리론》이 철저히 배격되여야 한다. 계급 교양을 떠난 공산주의 교양이란, 방향과 목적이 없는 부르죠아적, 초계급적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면서 무경각성을 경계하고 국내외의 원쑤들로

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민족배타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면서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 사이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들을 수정 거부하는 자들은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총체적으로, 혁명의 일반적 원칙들을 준수하며 고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정 거부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진짜 혁명가—공산주의자들과 가짜 혁명가—수정주의자들이 갈라진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로골적으로 외곡 수정하면서 이와 같은 립장을 정당화하려는 구실 밑에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당과 국가들에 대하여 《교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시대의 변화》와 그에 적응한 《창조적 발전》이란 명목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제멋대로 뜯어 고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에 의하면 핵 무기가 출현했고, 제국주의 진영과의 력량 대비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우세해졌고,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현 시대는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이고 모든 념원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경쟁을 통하여》 해결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의 어떠한 요설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는 여전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 즉 로동 계급과 모든 혁명적 인민들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전취를 위하여 미제를 선두로 한 온갖 반동을 반대하는 가렬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이 사회-경제 구성태들 호상간을 련결하는 발전의 법칙들은 변함 없이 작용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그 어떤 주관적 욕망으로써도 결코 이 객관적 법칙들의 작용을 막아 낼 수는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법칙들을 반영한 혁명의 제 원칙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는바 이것은 사회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들을 반영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증시해 주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만 혁명 수행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시대의 추세를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로 성과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고수하며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혁명의 일반적 원칙들은 실지 자기 나라의 혁명 사업에 적용하여 생활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그것을 성과적으로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정당성, 진리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철저히 주체적 립장에 서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은 모든 나라에 타당한 혁명 수행의 일반적 방도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 반드시 적용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원칙들 자체에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해답은 주고 있지 않으며 또 줄 수도 없다. 따라서 매개 나라의 당들은 주체적 립장에 서서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매개 나라는 경제 발전이 각이하여,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 반봉건 국가, 반식민지 반봉건 국가 등의 차이도 있다. 또한 매개 나라는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간의 력량 관계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의 준비 정도와 로동 계급의 전투력에 있어서, 그 나라 혁명 전통, 문화 전통, 풍습, 지리적 조건과 자연 부원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 사정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도와 속도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요컨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그것이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매개 나라들은 각이한 구체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민족은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적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완전히 동일하게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각 민족은 민주주의의 이런 또는 저런 형식이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런 또는 저런 변종이나 사회 생활의 각 방면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런 또는 저런 템포에 독특한 것을 가져 올 것이다.》 (전집 제 23 권, 83 페지)

여기로부터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응당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는 동시에 주체적 립장에 서서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혁명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형제 당들이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경험을 심중히 연구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도 기계적인 도입이 아니라 반드시 주체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연구 섭취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제반 원칙과 형제 당들의 경험에 창조적으로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진척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형제 당들의 경험도 역시 그렇다. 우리가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그 본질을 파악

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옳게 적용하여야 그 경험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채로 받아 들여 일을 망쳐 버린다면 우리 사업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형제 당들의 고귀한 경험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선집 제 4 권, 337 페지)

혁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체적 립장과 창조적 태도가 없이 교조주의적 행동으로써 남의 것을 모방하며 통채로 삼킬 때 그것은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주거나 지어 혁명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렬 내에 나타났던 교조주의자들과 완강히 투쟁하였다.

한때 우리 대렬 내에 잠입했던 종파'군들과 교조주의, 사대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형제 당들의 경험을 통채로 받아 들이며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관계 없이 사회주의 개조도 남의 나라와 같이 물질-기술적 토대가 구축된 다음에야 할 수 있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도 아직 다른 나라에서 해 본 일이 없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방하여 나섰다.

이러한 자들은 본질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가 창조적 학설이라는 것을 모르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혁명가적 기풍이 없는 자들인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교조주의, 사대주의적 립장을 배격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 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주체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조선 혁명의 주인은 조선 인민과 조선 로동당이며 따라서 조선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 자신이 책임지고 해 나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대중을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여 왔다.

이러한 립장에 튼튼히 섰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일반적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제 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었으며 또 우리 나라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지 않거나 남의 뒤공무니만을 덮어 놓고 따르는 자들을 항상 배격하여 왔으며 또 배격하고 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대렬 내에도 현대 교조주의자로 불리우는 이러한 맹동분자들이 있다.

이 교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과 형제 당들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민족주의》니, 《종파주의》니, 《분렬주의》니 하고 감투를 씌우려 하면서 자기들의 교조주의적 행동을 《국제주의적》 립장으로 정당화해 보려 하고 있다.

특히 이 교조주의자들의 특징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절대시하는 데서 범하는 오유인 것이 아니라 수정주의적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대국주의자들에게 맹종맹동하며, 대국주의자들의 소위 《경험》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통채로 삼킨다는 데 있으며, 이것을 국제주의적 립장으로 묘사한다는 데 있다.

교조주의자들은 남의 당의 정책, 립장을 자기 당에도 의무적인 것으로 선포하며 또 대국주의자들의 지시라면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국제 혁명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거리낌 없이 집행하고 있다.

주체성 없이 남의 것에 맹종맹동하는 이따위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조선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격의 제정신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제정신이 없이, 자기 것에 튼튼히 발을 붙임이 없이 남의 정신을 가지고 남의 덕에 혁명을 해 보려는 자들은 기필코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끼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주의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된다.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하려는 립장이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한 마디씩 해 주고 얻어나 먹자는 립장이 어떻게 국제주의와 량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철저히 리기주의적 립장이며, 기회주의적 립장이다.

현대 교조주의자들의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자국 인민들로부터 고립 당하게 할 뿐이며 그리하여 구경은 혁명을 그만 두는 길로 떨어지게 할 따름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자국 내에 전파하는 안내자이다.

수정주의의 우두머리나 그들을 따라 《남의 장단에 춤추는 자들》이나 혁명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반자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다 같이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혁명의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창조성》의 기치 하에 수정주의로 나가거나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로 떨어지는 엄중한 과오들을 다 같이 경계하여야 하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적 립장에서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제 1 차적 의무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의 담보이며 또 국제 로동운동,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며 외곡 수정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그들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며 그를 자기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생활력을 백방으로 과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매개 나라에서, 온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진정한 혁명가적 태도이다.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

—《인민 일보》 및 《홍기》 편집부 론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위대한 혁명적 폭풍이 일어 났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50 여 개 국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중국, 월남, 조선 및 큐바 4 개국은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면모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서의 혁명이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실패를 당하였다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정세는 전혀 달라졌다. 제국주의자들은 더는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불’길을 끌 수 없게 되였다. 제국주의의 낡은 식민지 체계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후방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충천하는 투쟁 전선으로 되였다. 일련의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는 제국주의의 지배가 이미 전복되였으며 기타 나라들에서도 그것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뒤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종주국 내에서도 제국주의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 혁명의 승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서로 호응하면서 우리 시대의 우렁찬 개선 행진곡을 울리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 혁명의 폭풍은 오늘 세계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자기의 태도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대한 혁명적 폭풍 앞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손’벽을 치며 환호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아주 나쁘다,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대단히 좋다,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이것은 반역이며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이것은 혁명이며 인민들의 권리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력사의 조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 시기의 이 가장 첨예한 정치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맑스-레닌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피압박 인민들의 편에 철저히 서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실제 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편에 서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백방으로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말로는 아직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는 구호를 감히 완전히 내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이러저러한 제스추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 그들이 수년래 고취하고 있는 일련의 론조와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놓고 본다면 그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소극적이며, 멸시적이며, 부정적인 것이다. 그들은 신식민주의의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7월 14일부 공개 서한과 쏘련 공산당 동지들의 수 많은 론설들과 연설들은 민족 해방 운동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변호하며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기 위하여 아주 많은 정력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반맑스-레닌주의적이며 반혁명적인 립장을 더욱 명백히 증명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면 민족 해방 운동 문제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리론》과 실천을 보기로 하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과업을 취소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앞에 나선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 과업이 이미 완수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이 투쟁 과업이 완수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항상 오늘 세계에서 식민주의는 이미 소멸되였거나 거의 소멸되여 가고 있는듯한 론조를 류포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구 상에는 5천만의 인구가 식민주의 통치 하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제도는 아프리카에 있는 포도아령 앙골라, 모잠비크 등지에 일부 잔재가 남아 있을 뿐 식민주의의 청산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 섰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과연 어떠한가?

먼저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정세를 보기로 하자. 이 지역에 있는 일련의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통제와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였으며 그 나라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략탈과 침략의 대상으로 되여 있으며 여전히 신 구 식민주의자들의 란투장으로 되여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구식민주의자들이 변신하여 신식민주의자로 되고 있으며 자기들이 양성해 낸 앞잡이들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타 일부 나라들에서는 앞문으로 승냥이가 나갔는데 뒤’문으로 또 호랑이가 들어 오는 격으로 새로운, 더욱 크고 더욱 위험한 미국 식민주의자들이 구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대표되는 신식민주의의 마수가 아

제아와 아프리카 각국 인민들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 보자.

제 2 하바나 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의 라틴 아메리카는 서반아 식민주의 제국보다 더욱더 야수적이고 더욱더 강대하고 잔인한 제국주의의 멍에를 쓰고 있다.》

또한 지적하기를, 제 2 차 세계 대전이 결속된 이후 《미국의 투자는 100억 딸라를 릉가하였다. 라틴 아메리카는 값싼 원료 공급지로 되였으며 값비싼 상품의 구매자로 되였다.》 《돈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미국으로 부단히 흘러들어 가고 있다. 즉 1 분 동안에 약 4천 딸라, 하루에 500만 딸라, 1 년 동안에 20억 딸라, 5 년 동안에 100억 딸라가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리의 1천 딸라를 강탈해 갈때마다 우리들에게 시체 하나를 남기고 간다. 1천 딸라에 하나의 시체—이것은 이른바 제국주의의 가격이다.》

사실은 아주 명백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식민주의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제국주의가 직접 식민지를 통치하던 낡은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자기들이 선택하고 길러낸 앞잡이들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와 식민지 착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군사 쁠럭의 조작, 군사 기지의 건설 또는 《련방》과 《공동체》의 창설, 괴뢰 정권의 부식을 통하여 식민지 국가와 이미 독립을 선포한 나라들을 자기들의 통제와 예속 하에 두고 있다. 그들은 경제 《원조》 등등의 방법을 리용하여 이러한 나라들을 계속 자기들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자본 수출지로 만들고 이 나라들의 재부를 략탈하고 이 나라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그들은 또한 유엔을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이 나라들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및 문화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이 나라들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전복 활동을 하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 간섭과 무장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신식민주의를 추진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은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교활하다. 미 제국주의는 신식민주의라는 무기로써 기타 제국주의의 식민지와 세력 범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자기의 세계 제패권을 수립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신식민주의는 더욱 위험하고 더욱 악랄한 식민주의이다.

묻노니 이러한 정세 하에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어찌 식민주의의 청산이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 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자기들의 황당한 말을 변호하기 위하여 1960년 성명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구실을 찾으려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1960년 성명이 식민지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성명에 지적된, 낡은 식민주의 제도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론점은 결코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이 류포시키고 있는, 식민주의가 청산되고 있다는 론점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폭로하였다.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은 미국이다.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의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영향의 공간을 자기 수중에 계속 틀어 쥐려 하고 있다.》 여기서 성명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민족 해방 운동이 소위 경제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고 하는 《리론》을 조작해 내였다. 그들은 《이전에는 투쟁이 주로 정치적 령역에서 전개되였으나》 지금은 경제 문제가 《중심 과업》이며 《혁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로》 되였다고 간주하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는 결코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말하는 그런 《새로운 단계》가 아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전례 없이 각성되고 혁명 운동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으며 그들이 자국에서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철저히 소멸하고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철저한 독립을 쟁취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들 앞에 나서고 있는 선차적이며 가장 긴절한 과업은 여전히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가일층 전개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상 및 기타 분야들에서 치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각 분야의 투쟁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치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왕왕 제국주의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무장 탄압에 매여 달리는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업은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떠날 수 없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소위 《새로운 단계》론은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소위 《식민주의가 청산되였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로 하는 신식민주의가 실시하고 있는 침략과 략탈을 미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들 간의 첨예한 모순을 은폐하는 것이며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려는 기도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리론》에 의하면 이미 식민주의는 거의 청산되였으며 지금 민족 해방 운동의 중심 과업은 다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라는 것이며 따라서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민족 해방 운동 과업을 근본적으로 취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로부터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말하는 경제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란 본질 상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 및 그 주구들을 반대할 필요가 없는 단계이며 또한 민족 해방 운동이 필요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을 취소하기 위한 처방

자기의 그릇된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피압박 민족들을 위한 만병통치의 처방을 만들어 냈다. 대체 이것이 어떤 처방인가를 보기로 하자.

첫째 처방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이라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전후 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민족 해방 운동에서 달성한 일련의 위대한 승리를 자기들의 소위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의 덕택으로 보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평화적 공존의 환경 속에서 최근 년간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중요한 승리들이 달성되였으며 세계 혁명 과정은 성과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또한 민족 해방 운동이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환경》 속에서, 두 적대적인 사회 제도의 경제적 경쟁의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이 《외국 독점체들의 경제적 지배로부터의 인민들의 해방 과정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모든 체계》에 《섬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계속 떠들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레닌적인 평화적 공존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은 결코 각국 인민 대중들의 혁명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은 민족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 나라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 혁명 투쟁을 그 어떤 다른 나라가 대신하여 해 줄 수는 없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견해에 의하면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는 주요하게는 각국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인민 대중은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들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스스로 소멸되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상 피압박 민족이 제국주의의 략탈과 예속에 영원히 타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거하지 말아야 하며 혁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처방은 후진 국가들에 대한 원조라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자기들의 경제 원조의 역할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흐루쑈브 동지는 이 원조가 이 나라들로 하여금 《새로운 예속을 피하게 하며 그들의 진보를 추동하며 국내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며 지어는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통하는 사회적 발전의 대로에 올라 설 수 있게 하는 국내적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에 제공하는 원조는 필요한 것이며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개조가 주요하게는 이 나라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원조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단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년간에 실시하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원조 정책과 그의 목적은 로골적으로 말해서 의아스러운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원조 문제에서 흔히 대국 배타주의적, 민족 리기주의적 립장을 취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리익에 손실을 주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모부가 인도에 주는 원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쏘련이 신생 독립 국가들에 주는 원조 중에서 인도는 첫 자리를 차지한다. 이 원조는 명백히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인민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네루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장려하려는 목적 밑에 제공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까지도 쏘련의 이 원조가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미제와 함께 《후진 국가들에 원조를 줄 것》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1959년 9월 미국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와 당신들의 경제적 성과는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다. 전 세계는 우리 두 렬강이 경제 발전에서 수 세기간 뒤떨어진 인민들로 하여금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이 《빨리 자립》하도록 피압박 민족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신식민주의자들과 즐겨 한 패가 되며 그것을 자신의 영예로 간주하는 것은 실로 괴이한 일이다.

세째 처방은 군비 철폐라는 것이다.

흐루쑈브는 《군비 철폐는 군대의 무장해제, 군국주의의 청산, 임의의 나라 내정에 대한 군사적 간섭의 제거,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청산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비 철폐는 청소한 민족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것이다. 만일 1천 200억 딸라에 달하는 세계 군사비 총액 중에서 8~10%만을 이와 같은 목적들에 배당한다면 20 년 내에 지구 상의 가난한 지역들에서 기아, 질

병 및 문맹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를 폭로하며 그를 반대하여 투쟁할 목적으로 전반적 군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변함 없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군비 철폐를 통하여 식민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간주한다.

흐루쑈브는《고통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제국주의는 무기를 놓을 것이며 자유가 당신들에게 강림할 것이다. 기다리라. 그러면 제국주의는 당신들에게 큰 자비심을 베풀 것이며 세계의 가난한 지역들은 우유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과실 동산이 꽃피는 복된 땅으로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와도 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아편이다.

네째 처방은 유엔을 통한 식민주의의 청산이라는 것이다.

흐루쑈브는 만일 유엔이 식민주의 제도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현재 외국의 지배로 인한 굴욕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 인민들은 외국의 멍에로부터 평화적으로 해방될 명백하고도 가까운 전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196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유엔이 식민주의 통치 제도의 청산을 주장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참말로 괴이한 소리다! 흐루쑈브의 견해에 의하면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인민들은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말아야 하며 또 청산할 수 없으며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문제에서는 유엔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흐루쑈브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서방 국가 인민들의 리성과 선견지명에 호소하며 그 정부들과 유엔의 이 고상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호소한다.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함에 있어서 서로 협조함으로써 이 합법칙적인 과정을 추진시키자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흐루쑈브는 유엔의 원조에 기대를 걺으로써 본질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유엔은 식민주의의 지배를 유지 강화할 수 있을 뿐 그 어떠한 식민주의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처방들은 마치도 제국주의가 식민주의를 포기할 수 있으며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혁명적인 리론들, 모든 혁명적인 주장들, 모든 혁명 투쟁이 이미 자기 세대를 다 살았고 필요 없게 되였으며 그것들은 청산되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있다.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하는 책동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민족 해방 운동과 민족 해방 전쟁을 말로써는 지지한다고 떠들기는 하나 혁명적 폭풍 앞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지어 조그마한 불꽃도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계 대전은 만일 그것이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열핵 전쟁으로 되여 모든 인류를 소멸할 것이라는 유명한 《리론》을 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흐루쑈브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국부 전쟁〉,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우리는 전쟁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거물거리는 불꽃을 끄기 위하여 완강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돋구어 웨치고 있다. 여기에서 흐루쑈브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취하여야 할,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는 립장을 배반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최근 18 년간의 력사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 총칼로 가혹한 지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피압박 민족의 혁명을 탄압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민족 해방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국주의와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부단히 일어 난 대 소 혁명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 평화 옹호 력량을 강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대전 도발 계획을 저지시켰다. 흐루쑈브는 평화를 위해서는 혁명의 불꽃을《꺼야》한다고 불어 대고 있다. 사실 대로 말한다면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 하에 그는 혁명을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정책에서 출발하여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모든 피압박 민족들에게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을 포기하고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제국주의 편에 서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혁명의 불꽃을 꺼버리기 위하여 가능한 온갖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전쟁을 실례로 들어 보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오래 동안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란서 제국주의 편에 서 있었다. 흐루쑈브는 알제리아의 민족적 독립 문제를 불란서의 《내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1955년 10월 3일 알제리아 문제에 언급하면서 《나는 우선 쏘련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념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1958년 3월 27일 불란서 신문 《피가로》 기자와의 담화에서 《우리는 불란서가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불란서가 자기 존엄을 강화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

였다.

불란서 제국주의에 유리하도록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오래 동안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가 결정적인 것으로 되고 불란서가 알제리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을 때 비로소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황급히 알제리아 정부를 승인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추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자기의 수치를 자랑하려고 하였으며 알제리아 인민의 희생적이며 류혈적인 투쟁의 열매도 그들이 제정한 《평화적 공존》이라는 영예 등록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콩고 문제에서 논 역할을 보기로 하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을 적극 지지할 대신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콩고에서 타번지는 《불꽃》을 끄기 위하여 황망히 미제와 《협조》하는 길로 나아갔다.

1960년 7월 13일 쏘련은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콩고에 유엔군을 파견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는데 찬동함으로써 미제가 유엔의 기'발로 가장하고 콩고에 대한 무력 간섭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쏘련은 자기의 수송 수단을 유엔군에 제공하였다. 7월 15일 흐루쑈브는 카사부부와 루뭄바에게 보낸 전문에서 지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유익한 사업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쏘련 출판물들은 유엔이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옹호하도록 콩고 공화국 정부를 방조하고 있다.》고 열렬히 찬양하였으며 유엔이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서 쏘련 정부는 8월 21일 부와 9월 10일 부 성명들에서 콩고 인민의 투쟁을 탄압한 유엔을 계속 극구 찬양하였다.

1961년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기젱가로 하여금 유엔군의 《보호》하에 개막된 콩고 국회 회의에 참가하며 괴뢰 정부에 참가하도록 추동하였다. 당시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파렴치하게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콩고 국회 회의의 소집이 《신생 공화국의 생활에서 뜻깊은 사변》이며 이것은 《민족적 력량의 승리》라고 떠들었다.

제반 사실들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자기의 그릇된 정책으로써 콩고를 반대하는 침략에서 미 제국주의에 커다란 봉사를 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루뭄바는 살해 당하였으며 기젱가는 투옥되였다. 많은 애국자들이 탄압을 당하였으며 콩고에서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실패하였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현 세계 모순이 집중된 지역

민족 해방 운동과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하는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발언들과 행동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않았으며 자기의 그릇된 로선과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격노하여 중국 공산당과 기타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대하여 중상과 공격을 퍼부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자기의 공개 서한에서 마치도 중국 공산당이 그 어떤 《새로운 리론》을 내 놓은듯이 공격하고 있다. 이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이러한 리론에 의하면 현 시대의 기본 모순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 아니라 민족 해방 운동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다. 중국 동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력량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국제 로동 계급의 투쟁인 것이 아니라 의연히 민족 해방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날조이다. 우리는 6월 14일 부 서한에서 현 세계의 기본 모순이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이며 피압박 민족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이며 제국주의 국가들 간 및 독점체들 간의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은 두 개의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 제도인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 간의 모순으로서 이 모순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첨예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제 모순을 단순히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에만 귀착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견해는 명백하다.

우리는 6월 14일 부 자기의 서한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혁명 정세와 민족 해방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론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1,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지역들은 현 시대의 세계의 각종 모순이 집중된 지역이며 제국주의의 통치가 가장 약한 지역이며 오늘 직접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고 있는 세계적인 혁명적 폭풍의 주되는 지역이다.》

2, 《이 지역들에서의 민족 민주주의 혁명 운동은 국제 사회주의 혁명 운동과 함께 현 시대에 있어서 두 개의 큰 력사적 조류를 이루고 있다.》

3, 《이 지역들에서의 민족 민주주의 혁명은 현 시기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4,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은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의 통치 지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그를 약화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현 시기의 강대한 력량이다.》

5,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위업은 결국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의하여 좌우된다.》

6,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은 결코 지역적 성격을 띤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 혁명 위업 전반과 관련된 전반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이 모든 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견

해이며 현 세계의 구체적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론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매우 유리한 혁명 정세가 조성되여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은 오늘 제국주의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가장 중요한 력량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의 제 모순이 집중되여 있는 지역들이다.

세계 모순의 집중점, 세계 정치 투쟁의 집중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투쟁과 혁명 정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이동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과 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요람이며 제국주의의 중심인 서구라파와 북미에서 대전투의 위대한 날이 도래할 것을 확신한다. 그 때에 가면 서구라파와 북미주는 의심할 바 없이 세계 정치 투쟁의 중심으로, 세계 모순의 결절처로 될 것이다.

1913년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적 대폭풍우의 새로운 원천이 아세아에서 터졌다.》 《우리는 현재 바로 이러한 폭풍우의 시대 그리고 그 폭풍우가 구라파에 〈반영〉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전집 제18권, 745 페지)

1925년에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식민지 제국은 제국주의의 주요한 후방인 것이다. 이 후방의 혁명화는 제국주의가 후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의 혁명화는 서양에서 혁명적 위기를 첨예화시키는 결정적 충격을 반드시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제국주의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집 제7권, 307 페지)

과연 레닌과 쓰딸린의 이러한 명제들이 그릇되였단 말인가? 이 명제들은 이미 오래 전에 맑스-레닌주의의 상식으로 되였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민족 해방 운동의 의의를 감소시키려고 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초보적인 상식도, 목전의 극히 명백한 사실들도 인정하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혁명에서 령도권에 대한 레닌의 사상의 외곡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7월 14일부 자기 공개 서한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견해도 공격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중국 동지들은 레닌을 〈시정〉하려 하고 있으며 마치도 로동 계급이 아니라 소부르죠아지나 혹은 민족 부르죠아지, 지어는 〈일부 애국적 기분을 가진 왕들이나 왕자, 귀족〉들이 제국주의와의 세계적인 투쟁에서 령도자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견해에 대한 철면피한 외곡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6월 14일부 자기 서한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을 고수할

필요성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력사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 운동의 최선두에 서서 사회주의적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프로레타리아 당들에 부과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정당들은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결속시킬 수 있는 모든 주민 계층을 결속시켜야 하며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 전선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정당들이 사상, 정치, 조직적 면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며 혁명의 령도권을 견지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6월 14일부 자기 서한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 광범한 반제 통일 전선을 결성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피압박 민족과 인민들 앞에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의 가장 광범한 주민 계층들은 제국주의 멍에를 메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들 중에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소부르죠아지들 뿐만 아니라 애국적인 민족 부르죠아지, 지어는 일부 애국적인 왕과 왕자, 귀족들도 있다.》

우리의 견해는 아주 명백하다. 즉 민족 해방 운동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을 고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광범한 반제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어떤 부정확한 점이 있단 말인가? 어째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우리의 정확한 견해들을 외곡하고 공격해야 하는가?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이다.

만일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그릇된 로선을 따라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과업을 근본적으로 취소하며 민족 해방 전쟁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이것은 피압박 민족들과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애국적 투쟁의 기치를 공손히 남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반제 통일 전선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어떤 사람의 지도 하에서도, 지어는 네루와 같은 반동적인 민족주의자의 지도 하에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줄곧 설교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관한 사상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물러 선 립장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공개 서한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운동 및 민족 해방 운동 간의 호상 지지의 관계에 대하여 민족 해방 운동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종주국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령도》 하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지어 이와 같은 주장이 프로레타리아

트의 령도권에 관한 레닌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것이 레닌의 사상에 대한 가장 란폭한 외곡이며 수정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이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자기의 혁명 취소 로선을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운동에 강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족주의와 변절의 길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7월 14일 부 공개 서한에서 중국 동지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국제 로동 계급과 그의 산아인 세계 사회주의 체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또 하나의 죄를 전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또한 우리가 민족 해방 운동을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으며 량자를 서로 《대치》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와 같은 소리로 말하며 그가 한 말을 되뇌우고 있는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과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민족 해방 운동을 사회주의 진영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에 대치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고 있는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다.

중국 공산당은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호상 지지한다고 변함 없이 간주하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립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익 전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적인 발전이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 및 전 세계 평화 위업을 위하여 극히 위대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추종 분자들은 이 역할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가 노는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민족 해방 운동의 지지가 노는 역할은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데서 노는 서방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이 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역할은 과소 평가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립장은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되며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릇된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이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피압박 민족들을 적극 지지 원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혁명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의 혁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지로 되여야 하며 그와 밀접한 동맹을 맺고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상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은 한 개 혹은 몇 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종결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이 자기들의 총 로선이라고 말하는 평화적 공존에 복종하며 자기들의 일국의 민족적 리익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25년에 쓰딸린은 뜨로쯔끼주의자들과 지노비예브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청산파들과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청산파들의 위험성의 특징은 《국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불신, 그 승리에 대한 불신, 식민지와 예속국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회의적 태도,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목적 자체인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는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초보적 요구에 대한 몰리해이다.》(전집 제 7 권, 220 페지) 라고 지적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민족주의와 변절의 길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정책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다. 왜냐 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세계 혁명 운동이란 한 개의 전일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시초인 동시에 그 종결로 보면서 우리 나라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다.》(전집 제 7 권, 220 페지)

쓰딸린은 청산파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중국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무엇 때문에 지지할 것이란 말인가? 그것은 위험하지 않을가?

그것은 우리를 다른 나라들과 반목케 하지 않을가? 다른 〈선진〉 강국들과 함께 중국에 〈세력권〉을 확립하고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중국에서 그 무엇을 좀 빼앗아 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전집 제 7 권, 221 페지)

쓰딸린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월 혁명의 대외 정책을 청산하려고 시도하며 변질의 요소들을 배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적 〈풍조〉는 이상과 같다.》(전집 제 7 권, 221 페지)

쏘련 공산당의 현 지도부는 실로 당시의 청산파들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현명한 자들로 자처하고 있는 그들은 《유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 일만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나라들과 다투게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 하고 있으며 때문에 백방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개의 소위 최 강대국 간에 《세력권》을 확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청산파들에 대한 쓰딸린의 비판은 바로 쏘련 공산당의 현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해당된다. 청산파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은 10월 혁명의 대외 정책을 취소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변절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쓰딸린은 한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오직 철저한 국제주의의 기초 우에서만 오직 10월 혁명의 대

의 정책의 기초 우에서만 최초의 승리한 나라가 세계 혁명 운동의 기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최소 저항 및 민족주의의 길은 최초의 승리한 나라의 고립 및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전집 제 7 권, 222 페지) 쓰딸린의 이 경고는 쏘련 공산당의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심중하고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사회 배외주의의 하나의 전형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압박하는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독립에 대한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를 적극 지지하며 그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압박하는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오직 피압박 민족들의 지지 하에서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였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에서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에 있어서 그 자본의 압박을 받는 수억만 〈식민지〉 노예와의 완전하며 밀접한 단결이 없다면 선진 제 국에 있어서의 혁명 운동은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기만으로 될 것이다.》(전집 제 31 권, 323 페지)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장기간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하고 미제가 불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치, 경제 및 군사적 통제와 구속을 과감히 반대해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을 반대하는 불란서의 민족적 투쟁의 기치를 드골과 기타 분자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온갖 수단과 구실을 다하여 불란서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적 리익을 옹호하고 불란서 식민지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에 지지를 주지 않았으며 지어 이 운동을 반대하여 나서기까지 하였다. 특히 그들은 민족 혁명 전쟁을 반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민족 배외주의의 진창 속에 굴러 떨어졌다.

레닌은 《식민지 인민들 역시 민족이라는 것을 구라파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이러한 〈전망증〉을 용인하는 것은 배외주의를 용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전집 제 23권, 74 페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레즈 동지와 같은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러한 《전망증》을 나타내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지어 공공연히 불란서 식민지 인민들을 《귀화된 불란서인》들로 간주하면서 민족적 독립과 불란서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란서 제국주의가 실시하는 《민족 동화》 정책을 로골적으로 지지하였다.

10 여 년 동안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불란서 독점 부르죠아지의 뒤꼬리를 따르면서 불란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

책에 추종하였다. 1946년 불란서 독점 자본의 우두머리들이 신식민주의적 간계를 부리면서 불란서 련방 창설안을 제기하였을 때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즉시 《우리는 변함 없이 불란서 련방을 자유로운 인민들의 자유로운 련방으로 간주한다》느니, 《불란서 련방은 새로운 기초 우에서 불란서 인민과 과거 불란서에 예속되여 있던 해외령 인민들 간의 관계 문제를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느니 하고 떠벌렸다. 1958년에 불란서 련방이 붕괴되고 불란서 정부가 식민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란서 공동체》 창설을 제기하였을 때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또 즉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창설이 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떠벌렸다.

뿐만 아니라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족적 독립에 대한 불란서 식민지 인민들의 요구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란서 련방에서 탈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유명 무실하고 일시적이며 허위적인 독립을 가져 오게 할 수는 있으나 오직 제국주의의 강화를 초래할 따름이다.》라고 떠벌렸다.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또한 《문제는 하나의 불가피성으로 된 이 독립이 불란서와 더불어 실현될 것인가, 불란서 없이 실현될 것인가 또는 불란서를 반대하여 실현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리익은 이 독립이 불란서와 더불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알제리아 문제에서 민족 배외주의 립장을 취하였다. 최근에 와서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벌써 오래 전에 《자유에 대한 알제리아 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오랜 기간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족적 독립에 대한 알제리아의 권리를 도대체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불란서 독점 부르죠아지를 추종하면서 《알제리아는 불란서의 불가분의 일부》라느니, 불란서는 《위대한 아프리카 국가이며 또 앞으로도 위대한 아프리카 국가로 되여야 한다》느니 하고 불어댔다. 토레즈와 기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관심사로 되는 것은 알제리아가 해마다 불란서에 《100만 두의 양》과 막대한 량의 밀을 납입함으로써 《육류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식량 부족을 충당》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보라,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의 민족 배외주의가 얼마나 심한가! 이들에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흔적이나마 있는가? 이들에게서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다운 면모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가? 이들의 이와 같은 민족 배외주의적 립장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익에 대한 배반이며 불란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익과 불란서의 진정한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이다.

《인종론》과 《황화론》에 대한 반박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여 온갖 수법을 다 쓰면

끝에 이제는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인종론에까지 매여 달리게 되였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을 견결히 지지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인종적 및 지리적 장벽의 축성》,《계급적인 관점을 인종주의적인 관점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주의적이며 지어 인종주의적인 편견의 리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 상에 맑스-레닌주의가 아직 없다면 이러한 거짓은 사람들을 속여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거짓의 날조자들은 때를 잘못 타고 태여 났다. 오늘날 맑스-레닌주의는 이미 사람들의 심장 속에 깊이 스며 들었다. 쓰딸린이 훌륭히 지적한 바와 같이 레닌주의는《백인종과 흑인종, 구라파인과 아세아인, 제국주의의 〈문명한〉 노예와 〈미개한〉 노예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깨뜨려 버렸다.》(전집 제 6 권, 192 페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바로 이러한 인종주의적인 장벽을 다시금 쌓으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현 시대의 민족 문제는 결국 계급 투쟁 문제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문제이다. 오늘 전 세계의 백색, 흑색, 황색, 갈색 등 각색 인종 중의 로동자, 농민, 혁명적인 인테리,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부르죠아들과 기타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개명 인사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통일 전선은 부단히 공고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백인들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색인들의 편에 서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줌도 못 되는 제국주의와 반동의 편에 서는가 하는 데 있다.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 명백히 계선을 갈라야 한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적인 계급적 관점이다. 그 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복무하는 민족 배외주의적인 관점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사회 민주당의 강령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소로 되여야 할 것은, 제국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가 거짓말로 회피하고 있는, 압박 민족과 피압박 민족에로의 민족들의 바로 그 구분이다.》(전집 제 21 권, 492 페지) 오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반제 투쟁에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그 어떤《지리적 및 인종적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는》단결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회 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의 립장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인종론》을 팔고 다니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백인들을 반대하는 유색인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구라파와 북미주의 백인들 속에서 인종주의적 증오심을 선동하려는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인민의 투쟁 목표를 딴 데로 돌리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로동 운동의 투쟁 목표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도처에서《황화》니,《칭기스 한의 위협이 또다시 닥쳐왔다》느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실상 이것은 반박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 론문에서 우리는 칭기스 한의 력사적인 역할을 론평하려 하지 않으며 몽고, 로씨야 및 중국 등 민족의 발전과 국가 형성 과정을 론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쏘련 공산당 지도부에 이러한 요언을 날조함에 있어서 력사를 한 번 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뿐이다. 칭기스 한은 당시 몽고의 한이였으며 중국도 로씨야도 그의 침략을 받았다. 1215년에 칭기스 한은 중국의 서북과 북방의 일부분에 침입하였으며 1223년에는 로씨야에 침입하였다. 칭기스 한이 죽은 후 그의 후계자는 1240년에 로씨야를 정복하였으며 30여 년이 지난 1279년에 전 중국을 정복하였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 로 신이 1934년에 쓴 자기의 글에서 칭기스 한에 대하여 한 말은 당신들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참고로 하도록 아래에 그것을 인용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스무 살 나던 때《〈우리〉의 칭기스 한이 구라파를 정복한 것은 〈우리〉의 황금 시대였다는 말을 들었다. 25 세 되였을 때에야 비로소 소위 이 〈우리〉의 황금 시대는 실상 몽고인들이 중국을 정복하였으며 우리가 노예로 된 때라는 것을 알았다. 금년 8월에 한 옛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권의 몽고 력사 책을 뒤졌는데 그 때에 비로소 몽고인들의 〈루씨〉 정복과 웽그리야, 오지리 침입이 아직 전 중국을 정복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칭기스 한은 아직 우리의 한이 아니였다. 로씨야인들이 우리보다는 노예 자격이 오랜 만큼 도리여 그들이 〈우리의 칭기스 한이 중국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황금 시대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로 신 전집 중문 판, 제 6 권, 109 페지)

세계 근대사에 대한 상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떠들어 대는《황화론》이 독일 황제 윌헬름 2 세의 유물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반 세기 전에 벌써 윌헬름 2 세는《나는 황화론자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독일의 윌헬름 황제가《황화론》을 고창한 것은 중국을 가일층 분할하고 아세아를 침략하며 아세아의 혁명을 진압하고 구라파 인민들의 혁명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였으며, 또한 그것을 당시 제국주의적 세계 대전의 도발과 세계 제패권의 쟁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연막으로 삼자는 것이였다.

윌헬름 2 세가《황화론》을 고창한 시기는 바로 구라파 부르죠아지의 극단한 부패와 극단한 반동의 시기였으며 바로 1905년 로씨야 혁명의 전후이며 민주주의 혁명이 중국, 토이기, 페르샤를 휩쓸고 인도에 파급되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레닌은《락후한 구라파와 선진적인 아세아》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당시에 윌헬름 2 세는 혁혁한 대인물이였으나 해'볕 아래 눈사람에 불과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반동의 두목은 자기가 조작한 반동 리론

과 더불어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그러나 위대한 레닌과 그의 빛나는 사상은 영원히 살고 있다.

세월은 50 년이 흘러 갔다. 서구라파와 북미주의 제국주의는 더욱더 부패해졌으며 더욱 반동화하였으며 그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한편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혁명의 폭풍은 레닌의 생존 시기보다 헤아릴 수 없이 거세차졌다. 이러한 시기에 윌헬름 2 세의 역을 맡아 나서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력사에 대한 희롱이다.

낡은 수정주의의 재생

식민지-민족 문제에서의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정책은 다름 아닌 파산 당한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적인 정책이다. 그 차이는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가 제국주의의 구식민주의에 복무하였다면 현대 수정주의는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에 복무한다는 오직 그 점에만 있다.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구식민주의의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는데 호루쑈브로 말하면 신식민주의의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제 2 국제 당의 《영웅 호걸》들인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는 제국주의의 구식민주의 통치의 변호인들이였다. 그 자들은 식민주의 통치가 진보적이라느니, 그것이 식민지들에 《고도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다》느니, 식민지들의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느니 하고 로골적으로 떠벌렸다. 그들은 심지어 식민지를 없애는 것은 《야만 상태로 돌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 점에서 호루쑈브는 낡은 수정주의자들과는 달리 구식민주의 제도를 비난할 용감성을 가지고 있다.

호루쑈브의 이러한 용감성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문제는 제국주의의 어조가 이미 변경된 데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 해방 혁명의 2 층적인 타격을 받고 《만약 서방이 식민주의를 현 상태 대로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폭력 혁명과 패배를 초래할 것이며》 구식민주의 통치 형태는 《오히려 국가가 경제적 및 도덕적 힘을 상실하는 〈궤양〉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방법을 변경시켜 신식민주의에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호루쑈브는 신식민주의자들과 합창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식민주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식민주의는 이미 철폐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피압박 민족들에게 신식민주의를 받아 들일 것을 설교하고 있다. 호루쑈브는 피압박 민족들이 문명한 제국주의와 《평화적 공존》을 하면 《민족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생산력의 왕양》을 이룩할 수 있으며 압박 받는 나라들의 《국내 시장이 비할 바 없이 확대되고》 《공업이 발전한 나라들의 경제에 필요한 더 많은 원료와 각종 제품 및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라고 백방으로 떠들어 대고 있다.

호루쑈브는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자들의 무기고에서 끄집어 낸 녹이 쓴 무기에 매 달리기를 잊지 않았다.

실례를 들어 보자.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민족 문제는 《오직 국제 협정을 통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호루쑈브는 《식민주의 제도를 고요히 매장》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볼쉐위즘은 사실상 호전적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 인터나쇼날은 로동자들의 해방이 백전 백승의 붉은 군대의 총창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으며 세계 혁명을 위하여서는 새 세계 전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비방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국면이 《새 세계 대전의 엄중한 위험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요언을 퍼뜨렸다. 오늘날 호루쑈브는 중국 공산당과 기타 맑스-레닌주의적 형제 당들을 비방하면서 한때 낡은 수정주의자들이 볼쉐위크들에게 하던 바로 그런 말을 쓰고 있다. 그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호루쑈브가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에 복무함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구식민주의에 복무하고 있던 낡은 수정주의자들에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 정책은 국제 로동 운동을 두 조류로, 즉 혁명적 조류와 기회주의적 조류로 갈라지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혁명적인 조류는 피압박 민족의 편에 서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혁명적 조류와는 반대로 기회주의적 조류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 및 반식민지 인민들로부터 략탈한 리윤의 일부를 얻어 먹고 자기 살을 찌우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와 식민주의자 편에 서서 피압박 민족의 해방 혁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국제 로동 운동에서의 혁명적 조류와 기회주의적 조류의 분렬은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민족 해방 운동이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로동 운동과 공고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또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복무하는 수정주의 조류와 명확히 계선을 갈라야 하며 그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서구라파와 북미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이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과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수정주의 조류와 명확히 계선을 갈라야 하며 그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 대렬 내에 잠입한 제국주의의 주구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만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담이며 거짓말》(전집 제 22 권, 394 페지) 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즉 오늘날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주의가 제아무리 가장하며 발악하여도 또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이 제아무리 제국주의를 분식하고 도와 주어도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는 멸망의 운명을 결코 면치 못 할 것이다.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는 가로 막을 수는 없다.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은 드디여 완전히 파산되고야 말 것이다.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피압박 인민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 21 호 (루계 235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1월 5일　인 쇄 • 1963년 11월 3일

ㄱ—330729　값 40 전

모 택 동

전쟁과 전략 문제

판 형	국 판
페지수	290 페지

모 택동 동지의 로작집 《전쟁과 전략 문제》는 중국 혁명에서의 전략과 전술 문제 특히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중국 공산당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천명한 모 택동 동지의 주요 로작들을 묶은 것이다.

이 로작집에는 《실천론》, 《모순론》, 《지구전론》, 《전쟁과 전략 문제》, 《신민주주의론》, 《항일 전쟁 승리 후의 정세와 우리의 방침》, 《인민 민주주의 독재론》 등 7 개편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했다.